

우리 화성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10)

2.3. 혼합체제기의 구조변화 (1981~92)

2.3.1. 산업구조

1981~92년 간에 우리나라 산업구조에는 세가지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 변화는 1차산업의 상대적 쇠퇴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표 2.17>에서 보듯 1981년에 17.4%이던 것이 1992년에는 7.6%로 10%대를 밑돌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60년대초에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 정책이 정책기조로 정착된 이후 부가가치 구성비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커져왔다. 그러던 것이 1988년에 35.8%에 이른 다음에는 추세적으로 감소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27.3%로 1988년 대비 8.5% 포인트나 작아졌다. 물론 경제발전의 역사를 보면 제조업 비중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오히려 작아지는 소위 탈공업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산업간 상대소득 구조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이 현저하게 더 유리해진다는데도 기인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한 나라가 주어진 비교우위 구조하에서 건설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제조업생산시설은 모두 건설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기술조건 하에서는 더 이상 건설할만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일종의 제조업종 포화(飽和)에 더 크게 근거한다. 서비스산업의 상대소득이 제조업의 그것보다 커지는 근본 이유도 사실 제조업건설 포화가 가져온 한계생산력 체감에 기인하는 것이다. 80년대 한국경제가 특히 첨단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확장투자와 신규투자를 할 여지가 많고 국민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이후 제조업의 때 이른 쇠퇴가 시작된 것은 6공 등장과 동시에 소위 거품경제가 발생하고 급격히 만연한데 기인한다.

<표 2.17> 산업구조추이 (1981~92)

(단위 : %)

구분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차산업	17.4	15.3	14.2	11.6	11.1	7.6
2차산업	34.7	34.8	34.7	36.6	35.0	27.6
제조업	33.2	33.6	33.6	35.6	34.3	27.3
서비스산업	47.9	49.9	51.1	51.8	53.9	64.8
사회간접자본	19.5	21.0	20.1	19.8	21.4	24.5

자료 : 대한통계협회, 주요경제지표 1992

한국은행 조사 통계월보 1993.4

산업 구조상 세 번째 특기할만한 현상은 1988년 이후 건설업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1981~87년 간 즉 5공 7년간 건설업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4%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8~92년 간에는 13.8%로 5.4% 포인트나 커졌다. 절대액으로 보더라도 1981~87년의 연평균 56,465억 원에서 1988~92년 간에는 228,653억 원으로 4.0배 이상 커졌다. 이처럼 건설업이 급격히 성장한 것은 1981~87년 간에 경제안정을 실현,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제외한 도로, 항만 등 좁은 의미의 사회 간접자본 설비와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1988년을 전후하여 커다란 애로(隘路)를 형성하게 된 까닭이다. 특히 1992년에는 건설업 생산은 351,267억 원으로 1981년의 80,692억 원보다 4.4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백만 호 주택건설, 경부고속도로 8차선화를 비롯한 도로 건설 등에 기인한다.

2.3.2. 노동력 구조

1974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노동력의 제한적 공급현상은 1980년대 이후에는 더욱 격화되어 1980년에 5.2%였던 실업률은 1988년에는 2.5%로 떨어졌고 1992년에는 다시 2.4%로까지 하락하여 심각한 과잉현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같은 노동력 부족현상은 노동력을 방출할 수 있는 유일한 풀(저수지)인 농업에 압력을 가중시켜 1981~92년간에 512.0만 명이 농촌을 떠나 농가인구는 1980년의 1082.7만 명에서 1992년에는 570.7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 결과 1차산업 취업자는 1981년의 456.0만 명에서 1992년에는 290.0만 명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하였고 1차산업 취업자 비율은 32.7%에서 16.0%로 줄었다.

한편 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1981년의 285.9만 명에서 1992년에는 493.6만 명으로 늘었다가 1992년에는 앞서 말한 제조업의 상대적 쇠퇴와 맞물려 476.8만 명으로 약간 줄었다. 그리하여 2차산업 취업자 비율은 1981년에는 21.3%이던 것이 1992년에는 25.2%로 3.9%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율은 44.5%에서 58.8%로 14.3% 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2.18>에서 보듯 페티법칙에 따라 1차산업 노동력은 급속히 감소하고 2차산업과 특히 서비스산업에서의 노동력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술진보 등을 통하여 1차산업 생산성이 크게 상승하고 특히 이중곡가제도 등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이 서서히 강화되고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산업간 상대소득 격차는 현저히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3~80년 간에는 100.0 대 201.6에서 100.0 대 270.5로 확대되어 왔던 농림 부문과 비농림 부문 상대소득 격차는 1992년에는 100.0 대 231.6로 약간 작아졌다.

<표 2.18> 노동력구조

(단위 : %)

구분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차산업	34.2	29.7	24.9	21.9	19.5	16.0
2차산업	21.3	23.3	24.5	28.1	28.2	25.5
제조업	20.4	22.5	23.4	27.0	27.6	25.2
서비스산업	44.5	47.0	50.6	50.0	52.3	58.5
산회간접자본	6.2	5.6	6.1	5.6	6.5	8.7

자료 : <표 2.17>과 같음.

그러나 비농림어업 중 2차산업과 서비스산업 간의 상대소득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고르지 못한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 즉 1963년에는 농림어업 상대소득을 100.0으로 하였을 때 각기 238.5와 190.2로 2차산업 상대소득>서비스산업 상대소득이란 관계를 갖던 것이 1974년에는 240.5 대 264.0으로 2차산업<서비스산업이라는 상대소득 구조로 변하고 이러한 추세는 1980년까지 계속 되었다.

<표 2.19> 상대소득 구조

구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2차산업	서비스산업
1981	100.0	246.7	320.2	211.6
1983	100.0	233.9	289.9	206.1
1985	100.0	200.3	248.4	177.1
1987	100.0	213.7	245.9	195.6
1989	100.0	194.0	218.0	181.1

1992	100.0	231.6	227.9	233.2
------	-------	-------	-------	-------

<표 2.17> 및 <표 2.18>에서 작성

그러나 1981년에 다시 320.2 대 211.6이 되어 2차산업>서비스산업으로 상대소득 구조가 변한 다음 1991년까지 그 같은 추세가 지속된 다음 1992년에는 1차산업<2차산업<서비스산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격차도 1981년에 2차산업을 100.0으로 할 때 서비스산업은 66.1로 매우 컸었던 것이 1992년에는 100.0 대 102.3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처럼 산업간 상대소득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산업간 부가가치 생산력 격차가 그만큼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산업간 부가가치 생산성 격차 축소는 기술이 고루 발전되고 상대가 격구조가 개선된 데 기인한다.

2.3.3. 공업구조

1972년 울산에 석유화학단지 건설이 완료되고 있어 1973년에 포항종합제철이 가동되면서 석유화학 및 철강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1년 이후에는 광양에 포항제철 광양공장이 일부 준공되어 제강능력은 1972년의 93만 톤에서 1980년의 934만 톤을 거쳐 1992년에는 2,100만 톤으로 커졌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공업 역시 여천 석유화학단지가 1979년에 가동되면서 생산량을 급격히 증대시켜 에틸렌 연산시설 능력은 1973년에는 10.0만 톤이던 것이 1979년의 50.5만 톤을 거쳐 1991년에는 315.5만 톤으로 또 같은 기간 중 합성수지원료는 23.1만 톤에서 70.0만 톤을 거쳐 489.3만 톤으로, 합성섬유 원료는 2.7만 톤에서 11.0만 톤을 거쳐 175.9만 톤으로 합성고무 원료는 2.5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10배 내지 최대 65배까지 생산을 증가시켰다.

철광과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2대 기초산업의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1981년 이후 중화학공업은 꾸준하고도 빠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고 다시 신소재 산업 및 첨단기술 산업까지도 가세하여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높였다. <표 2.20>에 따를 때 1981년에 61.5%이던 중화학공업 비율은 1989년에는 67.9%로 더욱 커져 공업 생산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공업 중에서는 석유 의류가죽 산업이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을 제치고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상가격으로의 생산액이 1981~89년 중에 2.5배 가량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8%에서 13.9%로 계속 작아지고 있다. 한편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8.2%로 의복 및 가죽제품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표 2.20> 공업구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1981		1985		1989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음식료품 및 담배	6,164,849	13.2	9,421,149	12.2	15,357,494	10.4
섬유·의복·가죽	8,270,750	17.7	11,723,010	15.2	20,654,580	13.9
나무·나무제품	970,145	2.1	1,267,029	1.6	2,539,263	1.7
종이·인쇄·출판	1,806,273	3.9	3,118,757	4.1	6,397,810	4.3
경공업합계	17,212,017	36.9	25,529,945	33.1	44,769,147	30.3
화학물·석유·석탄	12,641,940	27.1	18,580,294	24.1	27,980,882	18.8
비금속광물	1,781,118	3.8	3,122,768	4.1	5,904,075	4.0

제1차금속	4,504,127	9.6	6,951,024	9.0	13,514,176	9.1
조립금속·기계	9,816,804	21.0	21,623,676	28.1	53,516,149	36.0
중화학공업합계	28,743,989	61.5	50,277,762	65.3	100,915,282	67.9
기타	761,460	1.6	1,225,209	1.6	2,612,911	1.8
제조업총계	46,717,466	100.0	77,032,916	100.0	148,477,340	100.0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0.

중화학공업 분야에 있어서는 1981년까지도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중이 27.1%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조립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그 다음이어서 21.0%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5년에는 기계공업 비중이 28.1%로 화학공업(24.1%)을 앞지르게 되었고 다시 1989년에는 36.0%로 경공업 전체 비중보다도 커졌다. 제1차 금속산업은 철강 생산능력이 획기적으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9.6%에서 9.1%로 약간 그 비중이 하락되었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중은 3.8%에서 4.0%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1981~87년 간에 걸친 제조업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 전체로서는 연평균 17.6%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경공업 연평균 성장률은 14.8%이었고 중화학공업 19.5%로 중화학공업 성장률이 4.7% 포인트 컸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성장률이 가장 낮아 연평균 13.0%이었고 섬유 의 및 가죽 산업 성장률은 이보다 약간 큰 15.8%이었으며 나무 및 나무제품 제조업의 그것은 16.6%이었고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업 성장률이 19.1%로 가장 높았다.

한편 중화학공업 부문에서는 기계공업 성장률이 가장 높아 연평균 22.8%에 이르렀고 그 다음이 제1차 금속제조업이어서 연평균 성장률이 18.7%이었

다. 화학공업 성장률은 16.8%이었고 비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업 성장률이 가장 낮아 연평균 15.6%이었다. 기타 제조업 성장률은 평균보다는 약간 높아 20.0%를 기록하고 있다.

<표 2.20>에서 보듯 1981~89년 중에 경공업 생산액은 2.6배 증가에 그친데 반하여 중화학공업은 3.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업발전 단계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인 호프만 비율은 1981년에는 0.39 대 1이던 것이 1989년에는 0.51 대 1로 소비재 산업 비중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81년에는 호프만이 소비재 산업으로 분류한 음식, 담배, 의류, 신발, 가죽제품 및 가구산업 생산액은 총 89,921억 원이었고 자본재 산업으로 분류한 철강, 비철금속, 기계, 수송기계 및 화학공업 생산액은 총 126,419억 원이어서 그 비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0.39 대 1이었다. 그러나 1981~89년 중에 소비재산업 생산액은 249,290억 원으로 2.8배 증가한데 비하여 자본재산업 생산액은 486,074억 원으로 2.1배 증가한데 그치고 있다. 그 결과 호프만 비율은 0.51 대 1로 커졌다. 중화학공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호프만 비율이 커진 것은 경공업 생산구조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공업발전에 따라 섬유, 목재 등 중간재 형태로 생산 수출되던 것이 의복, 가구 등 좀 더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최종소비재 형태로 생산 수출되는 부분이 커졌기 때문이다. 1981년에 경공업 생산액 중 호프만이 최종 소비재로 분류한 음식, 담배, 의류, 신발, 가죽제품 및 가구생산액의 비중은 52.2%이었는데 1989년에는 55.7%로 커진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처럼 호프만 비율이 오히려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이후의 한국공업은 소비재산업 생산액 1 ± 0.5 대 자본재산업 생산액 1이라는 공업발전 제3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